

대학생의 점심식사 방식과 점심식사에 부여하는 의미: 문화기술적 연구*

이용숙** · 이수현***

이 연구는 30여 개 대학에서의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점심식사방식과 점심식사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보통 점심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31.5%나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업 및 다른 이유로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것과 학교에는 먹고 싶은 메뉴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시간과 돈의 절약이 필요해서 ‘때우는’ 점심을 먹고 있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때우는’ 점심을 먹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점심식사에 대해 학생들은 삶의 행복/즐거움/오아시스(29.7%), 힘/에너지/삶의 원동력(28.1%), 쉬는 시간/여유(22.7%), 소통시간(15.2%) 등의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배를 채우는 것/살기 위해 먹는 것’(12.5%)과 같이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번거로움’(7.0%)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결론에서는 대학생의 점심식사 문제가 사회

* 이 연구에는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의 2016년도 <현장연구실습 1> 수강생 29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고희라, 김보미, 김유진, 김윤정, 김수인, 김주민, 남도비아, 소은지, 송민희, 신동주, 안지영, 엄서연, 유미닝, 이도현, 이소현, 이지수, 전수현, 정한솔, 진화성, 조연희, 최원경, 최의연, 한다솜(이상 문화인류학과) 김하늘, 이영빈(이상 국문과), 남지은(정외과), 박수중(경영학과), 박유영(불문과), 박지현(중문과): 이 수강생들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이용철 교수님, 참여관찰, 심층면담, 설문조사에 참가해준 대학생들, 그리고 논문 개선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동국대 경영학과 조교수

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하였다.

〈주요개념〉: 대학생, 점심식사방식, 점심식사의 의미, 참여관찰, 심층면담,
서술형 설문조사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대학생 문화는 빠른 속도로 변해 왔다. 급속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던 1960~70년대에는 ‘대학’하면 ‘낭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적관리를 하는 대학생은 많지 않았다. 당시에는 수업/진로와는 관련 없는 독서를 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놀이로 많은 시간을 보내도 취업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었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진 1980년대의 대학생들은 ‘낭만’을 즐기기보다는 ‘운동서적’을 통하여 공부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성적관리와 영어공부에도 이전보다는 신경 쓰게 되었지만, 취업 걱정은 4학년 에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참여관찰 및 면담 결과). 그러나 1997년의 IMF와 2008년의 금융위기 등 취업 기회가 갑자기 추락하는 경험을 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1979년의 졸업정원제 도입과 1970~80년대의 지나친 신규대학의 인가로 대학졸업생이 급증한 시점이라 타격이 더욱 컸다. 따라서 졸업만 하면 웬만한 곳에 취직 되리라고 믿는 분위기가 있었던 1970~80년대에는 큰 인기가 없던 교사와 공무원 등이 인기 직종이 되었고,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의 큰 부분을 취업준비에 보내게 되었다. 최근에는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20대 실업이 크게 늘고 신자유주의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계약직’이 급증하면서 취업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대학생들은 더 커다란 취업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률’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하는 평가를 교육부로부터 거의 매년 받게 된 각 대학에서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호되는 직장의 정규직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 시절에 자기계발을 해야 하고, 성적관리 이외에 복수전공/부전공, 어학공부, 인턴 경험, 각종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다.”는 식의 취업지도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참여관찰 및 면담결과). 이러한 ‘자기계발 서사’는 대다수의 대학생들도 내면화하고 있어서, “적어도 3학년부터는 자기계발에 매진해야 점점 늘어나는 스펙 쌓기의 요구를 맞출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대해서 2010년 3, 4학년 대상(164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 ‘2~3년 전보다 매우 많은 스펙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56.7%, ‘약간 더 많은 스펙이 필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35.2%로, 총 91.7%나 되는 응답자가 더 많은 스펙이 필요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49.4%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의 스펙 쌓기는 지금보다 매우 더 과열될 것’으로 예상했고, 31.0%는 ‘약간 더 과열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총 80.4%가 앞으로 더욱 과열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3학년의 경우 아직 취업과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펙 쌓기 주요 품목 중 하나인 ‘자격증’을 이미 2개 이상(2~6개) 가지고 있는 비율이 여학생의 25.5%, 남학생의 34.0%에 달했다.²⁾ 따라서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은 자신과 친구들의 자격증 수를 비교하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담 결과).

이러한 대학생 문화의 변화는 공부 시간만이 아니라 점심식사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에게 모든 시간은 ‘밝은 미래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자산’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이 자신인 현재의 대학생들에게 점심식사 시간은 한편으로는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식사를 마친 후 생산적 활동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면담 결과).

한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역시 대학생의 점심식사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1) 학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 스펙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는 현상 등에 대한 면담과 설문조사는 연구자 중 한 명이 담당하던 덕성여대의 2010년 ‘현장연구실습’ 수업의 일환으로, 수강생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2) 남학생은 제대 후 복학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자격증 비율이 더 높은 이유 중 하나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변화 현상들이 우리의 식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박미성·안병일 2014). 식비 중 외식비의 비중은 1990년 20%에 불과했으나(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2015년에는 ‘외식 및 배달/테이크아웃 지출액’이 42%로 증가했으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55.1%나 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외식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대학생이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일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대학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노정미·유영상(1989)의 연구에서는 도시락을 전혀 싸오지 않는 학생들은 59.9%로서, 약 40%의 대학생은 매일(17.1%) 또는 부분적으로(23.0%) 도시락을 지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 같은 대학에서 참여관찰에 의하면, 도시락을 지참은 드물고 대부분 사먹거나 배달/테이크아웃 음식을 먹고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는 대학시절이 일생에서 유일하게 점심식사에 대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시기이며, 초중고 학교급식에서 벗어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매일의 식사 메뉴와 환경 등을 결정하는 최초의 시기이다(Lee, Cho, and Oh 2012), 대학시절에는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Seymour, Hoerr, and Huang 1997) 타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개인화된 스케줄로 인해 혼자 식사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등의 식생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박경애 2003). 직장에서는 점심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식사장소나 메뉴도 같은 부서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면담 결과). 이에 비해 대학생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지를 모두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상당수의 학생에게는 용돈의 부족이 식사메뉴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제약이지만, 용돈이 부족하지 않다면 이런 제약도 없다.

따라서 대학생활에서 점심식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학생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면담 결과에 의하면, 신입생은 갑자기 찾아온 자유로 인해 점심과 관련된 선택과 결정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에 압도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1학년 초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이후의 점심식사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점심식사의 의미는 변하게 된다. 또한 남녀공학여부와 성별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기도 하며, 휴학 이후 식사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한편 다니는 대학과 주변의 점심식사 장소가 얼마나 다양한가에 따라서도 점심식사 선택의 여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어떤 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점심식사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다른 학생에게는 그저 “한 끼를 때우는 것” 이외에 큰 의미를 갖지 않기도 한다.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점심식사가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상당한 개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점심식사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주로 점심식사의 영양학적 측면이나 보건의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자주 먹고 있으며, 여기에 어떠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가 영양학적이거나 보건의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점심식사 시간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해는 대학생 문화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기술적(ethnographic)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대학에서의 문화기술적 연구들은 주로 수업(예: 이용숙 2011)이나 유학생/교환학생의 학교생활(예: 박성원·신동일 2014) 등을 주제로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연구 주제로 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용숙(2003)의 “여대생과 남녀공학 대학생의 학교생활 비교연구”에서는 소속 학과와 동아리에서의 동기 및 선·후배와의 친밀도, 행사참여도, 하교시간, 수업관련행동 등에 대해서 다루었으나, ‘수업 외 시간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업이 없을 때와 수업이 끝난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어디인가만 다루었을 뿐, 개인적인 대학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여 개 대학에서의 점심식사에 대한 참여관찰과 60여 명 대상 심층면담,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점심식사 방식과 이들이 점심식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대학생의 식사행동에 대해서는 주로 영양과 보건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점심식사를 따로 다루기보다는 식생활 전체를 다루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를 들어, 노정미·유영상(1989)의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 모두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의 병이 많으며, 영양을 고려하지 않는 낮은 가격의 외식으로 인해서 영양문제가 우려됨을 발견하였다. 같은 대학에서 학교생활 중의 점심식사 실태와 주말과 방학 중의 점심식사 실태를 분석한 이희분·유영상(199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영양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고, 바람직하지 못한(불규칙한) 식습관³⁾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식사가 불규칙한 이유로는 수업시간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배가 고플 때 점심을 먹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주말과 방학 중에는 ‘늦은 아침식사 때문’, ‘입맛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미·최성경·이혜영(2000)의 연구에서는 전국 3개 대학 여대생 188명의 행동유형을 파악하고, 점심식사 음식점 장소결정과 메뉴선택 시 중시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행동유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결정적(decisive), 합리적(rational), 표출적(expressive) 유형은 저가격, 짧은 이동거리, 고품질 순서로 중시했으나, 탐구적(inquisitive) 유형은 고품질을 1순위로, 저가격을 3순위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 선택 시에는

3) ‘식습관’이란 인간이 생존을 위하여 후천적으로 형성해 온 생활양식 중 하나로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Wen, Tchong, and Ching 2015). 식습관 형성의 중요요인으로는 식품과 음식의 공급 가능성,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와 풍습, 가족의 식사 내용과 기호, 영양정보 매체 등이 있다(진양호·권혁성·이혜련 2014).

결정적, 탐구적, 합리적 유형은 맛을 가장 중시했으나, 표출적 유형은 기호도를 중시했으며, 관여도 분석결과 탐구적 유형이 식당을 결정하는 데 보다 더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예숙·최미경·배윤정(2015)의 연구에서는 기숙사생은 자가생이나 자취생보다 야식 비율과 빈도가 높았으며, 가장 늦은 야식, 적은 야식비용, 치킨과 분식의 잦은 섭취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대학생의 식습관을 주로 영양과 보건 측면에서 다루는 것은 외국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브레바드와 리케트(Brevard and Ricketts 1996)의 연구에서는 미국 동부의 대학기숙사 학생들보다는 학교 밖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단백질 섭취로 인한 에너지의 비율이 의미 있게 높음을 발견하였다. 라세트·도이싱어·스트루베·하이스타인·도이싱어(Racette, Deusinger, Strube, Highstein, and Deusinger 2005)의 연구에서는 미국 중서부 대학에서 식습관과 운동이 대학입학 이후 2학년까지의 체중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70%의 학생들은 2학년 말의 몸무게가 입학 직후보다 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몸무게 증가가 식습관이나 운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과 보건 측면을 다루지 않는 연구들도 주로 대학생들이 무엇을 먹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드리스켈·메크나·스케일즈(Driskell, Meckna, and Scales 2006)는 미국 중서부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식당에서의 주문 및 식사행동 비교 결과,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식당을 이용하는 남학생 비율(84%)이 여학생(58%)보다 의미 있게 많으며, 다이어트용이 아닌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42%)도 여학생(21%)보다 의미 있게 많은 것을 발견했다. 루피·바고르도·스테파나티·그라씨·피치니·베르가미니·드돈노(Lupi, Bagordo, Stefanati, Grassi, Piccinni, Bergamini, and De Donno(2015)는 이탈리아 대학생들의 가족과 거주/자취 여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식습관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웬·츙·칭(Wen, Tchung, and Ching 2015)은 대만 기술대 대학생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대만 학생들의 성격과 식습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심리학에서 활용되는 '5가지 성격특성 요소(big five personality traits)' 이론(Costa and

McCrae 1992)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델리언스 · 드포르쉐 · 드보르도히 · 클라리스(Deliens, Deforche, De Bourdeaudhuij, and Clarys 2015)는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벨기에 대학생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편 식습관 대신에 음식의 서비스 측면을 주제로 한 연구도 소수 있다. 예를 들어, 윌슨 · 포울러 · 위안 · 고(Wilson, Fowler, Yuan, and Goh 2012)는 미국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소비자로서 경험하는 음식서비스 속성의 중요성과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학교 음식서비스 마켓에서의 세그멘테이션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생의 식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의 영양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이건 아니건 간에 학생들이 무엇을 먹는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점심식사는 단순히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먹나’ 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대학생들의 점심식사방식과 이들이 점심식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 중 한 명이 담당하는 <현장연구실습> 수업 수강생의 도움을 받아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교수인 연구자가 점심식사를 참여관찰 한다면, 대학생들이 연구자를 지나치게 의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학(원)생 연구보조원도 연구대상 대학생들이 평소처럼 식사를 하면서 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장기간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점심식사를 연구보조원이 함께하면서 식사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평소의 점심식사와 달라지는 것이며, 그렇다고 라포를 위해서 수업을 듣거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학생들을 교수나 다른 학생들의 허락 없이 따라 다닐 수도 없다. 셋째,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점심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식사 약속 없이 평상시의 점심식사 모습을 관찰하려면 11시부터 최소 3시간은 참여관찰을 실시해야 그 안에 점심식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강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해서 스스로와 친구들의 식사를 참여관찰하도록 했으며, 면담도 친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덜기 위해,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모든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설문조사 자료는 엑셀파일에 입력하고 코딩하여, 주제분석과 내용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단계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점심식사 경험을 성찰적 자기문화기술지(self-ethnography) 형식으로 작성하기

자료 수집은 2016년 3월 중순 29명의 <현장연구실습> 수강생들(3, 4학년)이 대학에 입학해서부터 당시까지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일종의 자기문화기술지(self-ethnography)를 2~4쪽씩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주로 무엇을 어디에서 누구와 먹었으며, 어떤 감정을 느꼈고, 점심식사 방식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기록하도록 하였다.(한 수강생의 사례를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심식사의 역사에 대한 성찰적 기록만 분석해도 의미 있는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수강생들은 이 글을 씀으로써 습관적으로 먹던 점심식사에 대해 새로운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으며, 이어서 실시할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서 다른 학생들은 어떤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 1차 참여관찰

수강생 29명은 소속대학교와 다른 대학에서 각각 1회 이상씩의 점심식사를

1~3시간 동안 참여관찰 하였다. 타 대학에서의 참여관찰은 그 학교 학생인 지인의 식사에 동행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점심식사 앞뒤에는 식당들을 함께 또는 혼자 둘러보면서 되도록 여러 식당에서 참여관찰을 하였다. 또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이용해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비공식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연구자들은 각기 소속 대학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내외 식당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수강생들의 참여관찰일지는 연구자가 읽어보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편 중요한 발견이 무엇인지 기록하였다.⁴⁾ 참여관찰일지는 대부분 10쪽 이상이며, 20~30쪽을 작성한 경우도 많았다. 참여관찰의 초점은 아래의 ‘연구 질문(초안)’에 답하는 것에 두기로 하였다. 이 연구 질문들은 연구자와 수강생들이 조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거쳐서 선정한 것이다.

<연구 질문(초안)>

1. 대학생들에게 점심식사는 무엇인가?
 - 1) 점심시간 내에 먹으면 모두 점심식사인가?
 - 2) 간식과는 구분되는 점심식사가 따로 있는가?(어떤 음식이 ‘점심식사’로 여겨지는가?)
2. 대학생들에게 점심식사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인가?
 - 1) 식사가 가능한 시간이 10분 이내라도 점심식사를 하는가?
 - 2)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점심식사를 하는가?
 - 3) 오후 3시가 넘었어도 점심식사를 하는가?
 - 4) 혼자서 먹어야 하더라도 점심식사를 하는가?
 - 5) 수업시간 중이라도 점심식사를 하는가?
3. 대학생들은 학교에 간 날 점심식사로써 무엇을 누구와 주로 먹는가?
 - 1) 대학생들은 점심식사 장소/메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2) 대학생들은 점심식사 멤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4. 대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점심식사의 방법과 의미는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1) 학년에 따른 차이는?
 - 2) 성별에 따른 차이는?

4) 각각 수집한 자료의 공유가 쉽도록 참여관찰일지는 수업카페에 제시하도록 하고, 연구자의 피드백을 댓글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 3) 남녀공학/여대의 차이는?
 - 4) 전공에 따른 차이는?
 - 5) 캠퍼스 내의 다양한 식당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는?
5. 대학생의 학교에서의 점심식사의 방법과 의미는 식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 1) 동행유무에 따른 차이는?
 - 2) 동행자가 이성친구/동성친구인 경우의 차이는?
 - 3) 시간적 여유에 따른 차이는?
 - 4) 금전적 여유에 따른 차이는?

3) 2차 참여관찰과 공식적 심층면담

2차 참여관찰은 심층면담을 할 때 되도록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1차 참여관찰 결과 더 깊이 관찰할 필요를 느꼈던 점과 심층면담 과정에서 관찰의 필요를 느낀 점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수강생들의 일상적인 점심식사 중에도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참여관찰을 하게 되는 경우 기록해 두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은 각 수강생이 2명(타 대학 학생 최소 1명 포함)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30여 개 대학 학생 60여 명과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1~4학년이 골고루 망라되었다. 면담은 보통 1~2시간 이루어졌으나, 간혹 정보제공자 사정에 의해 40~50분 정도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심층면담용 질문리스트는 위의 ‘연구 질문(초안)’과 참여관찰 결과를 토대로 조별로 만든 후 연구자들이 종합, 정리하고 다시 전체토론을 하면서 함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했다. 질문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구 질문은 5개에서 다음과 같은 4개로 바뀌었다(지면관계로 <연구 질문 1>의 세부질문 리스트만 <부록 2>에 제시했다).

<1차 수정된 연구 질문>

1. 대학생들에게 점심식사는 무엇인가?
2. 대학생들에게 ‘점심식사’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인가?

3. 대학생들은 누구와 무엇을 어디에서 먹는가? (장소, 메뉴, 식사 멤버 구성)
4. 대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점심식사’의 방법과 의미는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학년, 성별, 남녀공학 여부, 캠퍼스 내외의 다양한 식당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질문리스트는 모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면담 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다. 즉 일부는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후속질문이나 새 질문을 자유롭게 추가하도록 하였다.

4) 분류체계/성분분석을 활용한 면담

일부 수강생은 지인과 심층면담을 실시할 때 ‘나의 학교에서의 점심식사의 종류’에 대한 분류체계/성분분석을 위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실제 점심 메뉴를 하나하나 포스트잇에 적게 한 후에 이를 비슷한 종류끼리 묶도록 하는 방법으로 분류체계분석표를 만든 후, 오른쪽의 성분분석표 부분에 칸을 채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한 여대생의 점심식사의 종류에 대한 분류체계+성분분석표 사례는 <표 1>과 같다.

정보제공자 미라(가명)의 점심식사에 대한 에믹(emic)한 분류방식을 보여주는 <표 1>을 보면, 점심식사는 ‘때우는 것’⁵⁾과 ‘식사’로 분류된다. 김밥, 컵밥, 컵라면으로 구성되는 ‘때우는’ 점심은 10~15분이면 먹는 데 비해, 패스트푸드, 학식, 면, 밥으로 구성되는 ‘(점심)식사’는 보통 20분 정도에 먹는다. 또한 미라가 가장 많이 먹는 것은 ‘학식(학교식당 음식)’이지만, ‘학식’은 좋아하는 순위로는 낮은 편(13개 중 8순위)이다.

이런 방식으로 총 23명(여학생 16명, 남학생 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자들은 각각의 분류체계/성분분석표로부터 중요한 공통점을 찾아, 다른

5) “때우는/때운다”란 참여관찰과 면담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고유 용어 (native term)로서,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라 배고픈 것을 면하기 위한 간단한 식사를 의미한다.

〈표 1〉 정보제공자 ‘미라’(4학년 여대생)의 ‘학교에서의 점심식사의 종류’
 분류체계+성분분석표 사례

분류 단계 1	분류 단계 2	분류 단계 3	많이 먹는 순서	좋아 하는 순서	함께 먹는 사람	평균 소요 시간(분)	비용 (원)	먹는 장소	학교에 서의 거리	가격 대비 만족
매우 는 것	김밥	김밥	6	12	X	10	2000	교실, 학식, 계단, 정원	중간	▲
	컵밥	밥버거	7	11	O	15	3000~ 3500	교실, 행정관, 순환관, 학관	중간	▲
		툰라이 스	8	5	O	15	300~ 4000	집, 교실, 학관, 행정관	중간	●
	라면	컵라면	11	13	X	10	1500~ 3000	학관, 동방	가까움	●
식사	패스트 푸드	햄버거	9	6	O	20	5000~ 6000	패스트푸드점	중간	●
		스낵랩	10	7	O	20	5000~ 6000	패스트푸드점	중간	●
	학식	학식	1	8	O/X	15	2800~ 3300	학식	가까움	▲
	면	파스타	5	2	O	20	7000~ 10000	파스타집	땀	●
		우동	12	9	O	20	6000~ 10000	우동집	가까움	●
		국수	13	10	O	20	3000~ 7000	분식집	중간	●
	밥	찌개	3	1	O	20	6000	음식점	가까움	●
		볶음밥	2	3	O	20	6000	음식점	가까움	●
		덮밥	4	4	O	20	6000	음식점	중간	●

자료와 연계해 논의하였다.

5) 참여관찰일지와 심층면담일지의 엑셀 입력과 코딩

참여관찰일지와 심층면담일지에서 표와 그림, 사진을 제외한 모든 텍스트는 엑셀파일로 입력하였다. 일지내용을 입력하는 열의 각 셀에는 한 문단

또는 질의응답 한 토막씩 입력하고, 그 옆의 열에는 키워드와 인용가치(0~5 수준)를 각자 입력하였다. 모든 입력이 끝난 후 29명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쳤으며, 이를 가지고 주제리스트를 만들었다.⁶⁾ 주제리스트 초안은 수강생들이 조별로 대주제를 나누어 맡아서 만들었으며, 이를 합친 후 연구자들이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주제리스트 초안 본을 만들고, 이에 대한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시 수정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완성한 주제리스트를 대주제와 중간 수준의 주제까지만 아래에 제시하였다(소주제 제시는 지면관계로 생략함).

<코딩을 위한 주제리스트>

<대주제 1> 대학생들에게 점심식사는 무엇인가?

1. 점심식사의 의미
2. 점심식사의 조건
3. 실제 점심식사 시간
4. 아침/저녁식사와의 차이

<대주제 2> 점심식사는 반드시 먹는가?

5. 점심식사 못(안) 먹는 경우
6.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점심 먹기(때우기 등)
7. 점심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

<대주제 3> 누구와 무엇을 어디에서 먹는가?

8. 점심식사 멤버
9. 점심식사 장소
10. 많이 이용하는/선호하는 식사장소와 메뉴 (많이 먹는 곳과 선호하는 곳의 차이점)
11. 점심식사 후의 후식
12. 점심식사 장소/메뉴 결정에 영향 미치는 것들

<대주제 4> 배경에 따른 점심식사 방법의 차이

13. 개인적 배경에 따른 차이
14. 교내외 식당의 발달에 따른 차이

<대주제 5> 대학생의 '혼 밥'

15. 식당에서 '혼 밥'하는 학생들의 비율
16. '혼 밥' 경험

6) 주제리스트를 만드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용숙(2016) 참조.

- 17. ‘혼 밥’에 대한 인식
- 18. 공학과 여대의 혼 밥
- <기타>
- 19. 연구 참여자 배경
- 20. 기타

이 리스트의 대주제를 앞의 ‘1차 수정된 연구 질문’과 비교하면 ‘대학생의 혼 밥’이라는 대주제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는 혼자 밥 먹는 학생이 많이 관찰되고 면담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는 등, ‘혼 밥’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리스트의 주제번호까지 엑셀파일에 입력된 사례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참여관찰일지와 심층면담보고서 내용을 입력한 엑셀파일의 일부
(수강생 고희라의 엑셀파일)

일시	장소	자료의 성격	내용	키워드	인용 가치	주제	주제 번호
3월 18일 금 11:54 ~ 13:00	덕성여대 학생회관 2층 학생식당	참여 관찰	처음 관찰을 시작하자마자 딱 보인 것은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과 여러 명(2명 이상)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었다. 18명 정도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고, 2명 이상 함께 밥을 먹는 무리는 6 집단이 있었다. 나는 일단 혼자 밥을 먹는 사람과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비교 관찰 해보기로 했다. 혼자 먹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주로 테이블 오른쪽 끝 창문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그림 2 참고) 두 그룹(혼자 먹는 사람, 2명 이상 같이 먹는 사람) 간	혼밥과 2명 이상 함께 먹는 사람 비교, 메뉴 선택, 자리 선점, 밥먹음	3	교내식당 혼 밥 비율, 혼 밥 하는 좌석, 혼 밥 할 때 하는 일	15(1) 16(6) 16(7)

7) 혼자 먹는 밥을 뜻하는 ‘혼 밥’은 매스컴이 주목하기 시작한 신조어로, 최근 사회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요소와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되고 있다(중도일보, “2016 청춘들은 ‘혼자 먹는 밥’ 고수”, 2016. 05. 18). ‘혼 밥’과 함께 ‘혼밥족’이라는 말도 나왔다(중앙일보, “‘혼밥족’ 이유, 세대별로 달라요”, 2016. 05. 30). 중앙일보에 소개된 건강증진개발원(오유진 2016)의 직장인 47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의 혼 밥의 이유는 “여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라는 답이 가장 많은 반면, 30대와 50대 이상은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는 시간이 없어서(29.2%)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5.8%는 “끼니를 대충 때우게 되는 것”을 혼 밥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일시	장소	자료의 성격	내용	키워드	인용 가치	주제	주제 번호
			<p>자리 선점에 대해 비교해 보기로 했다. 2명 이상 같이 먹는 사람들은 자리 선점에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혼자 먹는 사람들은 아까 언급했듯이 테이블 오른쪽 끝 창문 쪽에 서로 떨어져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학생식당의 더 깊은 내부인 옛향 쪽 테이블에 많이 앉아 있었다(그림 2 참고).</p> <p>나도 학생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테이블 오른쪽 끝 창문 쪽에 자주 앉는다. 테이블의 가운데 부분은 여러 명이서 함께 먹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기 때문이다. 또 테이블 가장자리 부분보다 중앙부분이 사람들의 대화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통행이 잦고, 눈에 잘 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앉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워 구석자리에 앉는다. 대화를 할 사람이 없이 혼자 밥을 먹어야 하니 사람들이 많이 떠들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 앉고 싶다. 참여관찰을 하며 혼자 밥을 먹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평소 혼자 먹을 때 앉는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테이블 끝 쪽에 앉는 것일까?'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나중에 심층 면담 때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p> <p>그 다음은 두 그룹 간에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혼자 먹는 사람들은 묵묵히 밥만 먹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행동이 많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2명 이상 같이 먹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하나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p> <p>두 그룹 간 메뉴 선택에도 차이가 있는지 지켜보았지만 이렇다 할 패턴이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	면서하는 행동			

6) 설문조사

엑셀파일의 코딩(주제번호 입력) 결과와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설문조사지를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수강생들이 대주제별로 조 구성을 하여 질문리스트를 만들었으며, 연구자들이 이를 종합정리한 후 수강생들과 함께 두 차례 수정하여 설문지 초안을 만들었다. 설문지 초안은 40% 정도가 서술형 문항이며 항목 수도 매우 많아 답변에 40~50분이 소요되었으므로, 수강생들만 답을 하였다. 이는 수강생들의 조사결과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는 한편, 예비조사용 설문지 개발을 위한 수정사항과 1차적으로 줄일 문항들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2)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자들의 3차례 수정을 거쳐서 예비조사용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초안에 비해 문항이 3/4만 남고, 서술형 질문도 30% 정도로 줄어든 예비조사용 설문지는 각 수강생이 다른 대학 학생 1명 이상에게 보내서 총 30명(남학생 21명, 여학생 9명)의 응답을 받았다. 남학생이 더 많은 것은 수강생들이 모두 여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되도록 지인 중 남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답을 하면서 문항수정이 필요한 곳도 지적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수정되었다. 대주제 1과 대주제 2를 <연구 질문 1>로 합친 것이다.

<2차 수정된 연구 질문(최종)>

1. 대학생들에게 점심식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2. 대학생들은 누구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먹는가?
3. 학년/성별/공학여부에 따른 대학생들의 점심식사 방법의 차이
4. 대학생들의 ‘혼 밥’

(3) 최종 설문지는 예비조사용 설문지에 비해 문항 수를 절반 정도 줄였다. 또한 설문조사지 초안과 예비조사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여, 대부분의 서술형 문항을 선택형 문항으로 바꾸었다. 서술형 문항으로는 “나에게 점심식

〈표 3〉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학년별/성별 분포

학년	남학생	여학생	계
1학년	22명	18명	40명
2학년	27명	26명	53명
3학년	25명	27명	52명
4학년	26명	29명	55명
계	100명	100명	200명

사는 ()이다.”와 “나에게 혼 받은 ()이다.”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을 모두 적어달라는 문항과 다니는 대학교 이름을 적어달라는 문항 등 3개만 제시하고, 나머지 44개 문항은 모두 선택형 문항으로 만들었다. 지면관계로 설문조사 문항 중 ‘누구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먹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대한 문항만 〈부록 3〉에 제시하였다.

(4) 최종 설문지는 조사회사에 의뢰하여, 서울경기도·인천의 남자대학생 100명과 여자대학생 100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학년/성별 분포는 〈표 3〉과 같다.

(5) 여학생 응답자를 소속 대학 별로 나누어본 결과, 대다수는 남녀공학 여학생이고 여대 여학생은 11명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 결과만 가지고 남녀공학과 여대를 비교하기는 어려웠으므로, 남녀공학 대학 한 곳에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차 조사 대상인 여대생들의 응답결과와 비교하기로 하였다. 연구자 중 한 명이 담당하는 〈조사방법론〉 2개 수업 수강생 총 78명(남학생 46명, 여학생 32명)이 응답하였으며, 따라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설문지 초안을 활용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대생(수강생), 남녀공학 여학생, 남녀공학 남학생 등 세 집단의 비교를 할 수 있었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4개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주로 세 개의 결과만 제시한다. 네 번째 연구 질문인 ‘혼 밥’에 대한 연구 결과 제시를 위해서는 많은 지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소한으로만 제시했고, 별도의 논문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세 개의 연구 질문 중에서 ‘성별/학년별/공학여부별 차이’는 별도로 제시하기보다 다른 질문들과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장은 두 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1) 대학생들의 점심식사 방법

대학생들의 점심식사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대학생들은 수업이 있는 날 하루에 몇 끼나 먹고 있으며, 이 중에 점심식은 포함되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1)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가?

대학생들의 식사 횟수와 점심식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항은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와 예비조사에만 포함했기 때문에 두 조사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수업이 있는 날 하루 3끼 이상을 먹고 있는 대학생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예비조사 응답자의 경우 33.3%만이 하루 3끼 이상 먹고 있으며, <현장연구실습> 수강생인 여대생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은 12.5%만이 하루 3끼 이상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학생들도 54명 중 4명(7.4%)이 있었다.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먹는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점심식은 매우 중요한 식사였다. 한 끼만 먹는 경우에는 모두 점심식사로 그 한 끼를 먹고 있었으며, 두 끼를 먹는 경우에도 대부분(예비조사 참가자의 88.2%와 수강생의 95.5%) 점심식은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점심식은 하루의 첫 식사인 경우가 많았다.

〈표 4〉 수업 있는 날 하루 식사 횟수와 점심식사 포함 여부

수강생(무 응답자 제외 총 24명의 여대생)			예비조사 참가자(30명의 남녀학생)		
하루 식사 횟수	응답 수	이 중 점심식사를 포함하는 응답자 수	하루 식사 횟수	응답 수	이 중 점심식사를 포함하는 응답자 수
1회	1명(4.2%)	1명	1회	3명(10.0%)	3명
2회	20명(83.3%)	19명	2회	17명(56.7%)	15명
3회 이상	3명(12.5%)	3명	3회 이상	10명(33.3%)	10명
계	24명(100%)	23명	계	30명	28명

〈표 5〉 학교에서 보통 점심식사를 하는 비율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	200명	100명	100명	40명	53명	52명	55명
보통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68.5%	73.0%	64.0%	62.5%	73.6%	63.5%	72.7%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못(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18.5%	12.0%	25.0%	22.5%	15.1%	17.3%	20.0%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13.0%	15.0%	11.0%	15.0%	11.3%	19.2%	7.3%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렇다면 이들의 점심식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200명 대상의 본 설문조사 결과인 〈표 5〉를 보면, “보통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한다.”는 응답은 68.5%에 불과하며,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0%,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응답이 18.5%나 된다.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거의 못하거나’(26명)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37명)고 답한 63명이 제시한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안(못)하는 이유’는 〈표 6〉과 같다.

〈표 6〉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못(안)하는 경우가 많거나 거의 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명)	63	27	36	15	14	19	15
수업으로 인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50.8	44.4	55.6	46.7	21.4	52.6	80.0
학교에는 먹고 싶은 메뉴가 없어서	30.2	29.6	30.6	46.7	35.7	26.3	13.3
아침 겸 점심(‘아점’) 또는 점심 겸 저녁(‘점저’)을 먹기 때문	20.6	14.8	25.0	20.0	14.3	26.3	20.0
수업 이외의 이유로 인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20.6	14.8	25.0	13.3	14.3	15.8	40.0
점심을 집에서 먹기 때문에	19.0	22.2	16.7	0.0	28.6	26.3	20.0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19.0	18.5	19.4	26.7	21.4	15.8	13.3
배가 고프지 않아서	14.3	18.5	11.1	26.7	7.1	15.8	6.7
다이어트 중이라서	12.7	7.4	16.7	6.7	14.3	21.1	6.7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11.1	18.5	5.6	13.3	7.1	10.5	13.3
점심을 원래 먹지 않기 때문에	3.2	3.7	2.8	0.0	0.0	10.5	0.0
기타	9.5	14.8	5.6	6.7	7.1	15.8	6.7
총합	211.1	207.4	213.9	206.7	171.4	236.8	220.0

〈표 6〉을 보면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못(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업으로 인해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50.8%), 두 번째는 “학교에는 먹고 싶은 메뉴가 없어서”(30.2%), 세 번째는 “수업 외의 이유로 인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20.6%)다. 이 중 “학교에는 먹고 싶은 메뉴가 없어서”가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저학년이 누리는 사치인지도 모른다. 고학년이 될수록 메뉴를 이유로 드는 경우는 줄어든다(1학년 46.7%, 4학년 13.3%). 특히 4학년 학생(15명)의 경우에는 수업이나(80%)나 수업

외의 이유(40%)로 인해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다른 학년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졸업을 목전에 두고 전공만이 아니라 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복수전공/부전공 과목들의 수강을 더 이상 미룰 곳이 없는 4학년들은 점심식사 시간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수업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1학년 역시 수업으로 인해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는 답이 많은 편이지만(46.7%), 이는 아직 첫 학기인 1학년들이 점심식사를 위한 ‘공강 시간을 남겨두고 시간표 짜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생긴 현상으로 고학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편, 3학년은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4학년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와 개인에게 취업의 책임을 돌리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나날이 커지는 취업 스트레스와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3학년은 “가장 바쁜” 학년이 되었다(면담 결과)는 것과 관련 있다. 3학년은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시작해야 하므로, 아직 들어야 할 전공과목도 많은데 복수전공/부전공에도 신경 써야 하고, 성적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점심시간마저 아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면담결과).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못(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3학년 학생 19명의 절반 이상(52.6%)이 수업으로 인해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수업 외의 다른 이유로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는 답(15.8%)은 4학년보다 훨씬 적어서 1, 2학년과 별 차이 없었다.

이상에서 취업을 앞둔 3, 4학년의 삶은 매우 고단하며, 많은 고학년들에게 ‘제대로 된 점심식사’는 빨리 ‘포기’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교실공간의 최대 활용을 위해 점심시간대에도 수업을 편성하는 오늘날의 대학에서 많은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본 전공만이 아니라 복수전공/부전공에 필요한 과목들까지 수강해야 하고, 이는 점심식사도 못하는 학교생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거른다는 것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전(졸업정원제 이전)처럼 12시에서 1시에는 수업편성을 하지 않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가설적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 <표 7>을 보면 학생

〈표 7〉 12시에서 1시 수업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의 점심식사 방식에 대한 예상
(단위: %)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명)	200	100	100	40	53	52	55
현재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48.5	52.0	45.0	57.5	54.7	48.1	36.4
점심은 항상 12~1시 사이에 여유 있게 먹을 것 같다	30.0	29.0	31.0	32.5	28.3	19.2	40.0
점심을 간단히 먹고, 12~1시의 남은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것 같다	10.5	10.0	11.0	0.0	11.3	17.3	10.9
이 시간에 매우 복잡할 것이므로 12~1시 점심식사를 피할 것 같다	10.0	8.0	12.0	10.0	5.7	11.5	12.7
기타	1.0	1.0	1.0	0.0	0.0	3.8	0.0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들의 생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7〉에서 절반(48.5%)의 응답자는 12~1시에 점심식사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현재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에는 이미 공강 시간이 확보되어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경우와 시간 여유와 상관없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12시와 1시 사이에는 모두 공강으로 만든다면 내 점심식사 방식이 달라질까?”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 같다. 지금도 소위 점심시간 내에 공강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나는 이렇게 허술하게 밥을 먹고 있는 상태이다. 내 식사방식이 달라지려면 시간이 달라지기보다는 다른 생활방식들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 할 일이 줄어들거나 학교를 다니는 삶에 여유가 생긴다면 말이다. 내 식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에게 은연중에 압박감을 주는 할 일들이라 점심메뉴도 점점 한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생활패턴이 바뀌어야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수강생 남지은의 참여관찰일지>

또한 10.0%는 식당이 붐빌 것을 우려해서 오히려 이 시간을 피할 것 같다고 답했다. ‘더 여유 있게 식사를 한다.’거나(30.0%) ‘간단한 식사 후 하고 싶은 일을 할 것’(10.5%)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5%로, 절반에 못 미쳤다. 그러나 시간 부족으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 4학년의 경우,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50.9%)은 이러한 시간조정이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학생들이 걱정하는 지나치게 붐비는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식당의 확보를 전제로 하여 공식적 점심시간이 만들어진다면 보다 규칙적인 점심식사로 대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점심식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며, 이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인가?

대학생들이 점심식사를 가장 많이 하는 장소 1순위만 보여주는 <표 8>을 보면 학생식당을 든 경우가 제일 많으며(40.0%), 학교 근처 식당이 두 번째(34.0%), 교내 편의점이 세 번째(8.0%)다. 학생들이 학생식당에서 점심식사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학생식당에서의 식사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23명의 ‘점심식사의 종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종합한 바에 의하면, 선호하는 순위로는 낮은 편인 ‘학식’을 가장 많이 먹거나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것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점심식사를 많이 하는 장소로서 학생식당이 1순위인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마찬가지로이지만, 학교 근처 식당과 편의점은 성별로 차이가 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학교 근처 식당을 1순위로 든 경우가 8% 정도 더 많은 대신 교내 편의점을 든 경우는 10% 더 적다. 학년별로는 4학년은 학생식당이 1순위인 경우가 절반이 넘을(52.7%) 정도로 다른 학년보다 훨씬 많은 반면, 학교 근처 식당이 1순위인 경우는 가장 적은 것(23.6%)으로 나타났다. 1학년과 2학년에게는 학교 근처 식당이 1순위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각각 42.5%, 39.6%), 3학년에게는 학생식당이 1순위인 경우와 학교 근처 식당이 1순위인 경우가 똑같게(32.7%) 나타났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3학년에게는

〈표 8〉 수업이 있는 날 점심식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곳(1순위)

(단위: %)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명)	200	100	100	40	53	52	55
학생식당	40.0	40.0	40.0	37.5	35.8	32.7	52.7
학교 근처 식당	34.0	38.0	30.0	42.5	39.6	32.7	23.6
교내 편의점	8.0	3.0	13.0	2.55	7.55	15.4	5.5
교내 프랜차이즈 식당	6.0	6.0	6.0	7.5	5.7	5.8	5.5
배달음식으로 교내에서	4.5	4.0	5.0	5.0	0.0	3.8	9.1
교외 편의점	3.0	3.0	3.0	5.0	1.9	5.8	0.0
교내 카페	1.5	2.0	1.0	0.0	1.9	1.9	1.8
학교 근처 카페	1.0	1.0	1.0	0.0	1.9	0.0	1.8
기타	2.0	3.0	1.0	0.0	5.7	1.9	0.0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교내 편의점이 1순위인 비율이 15.4%나 되어, 다른 학년의 경우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이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제시한 〈표 9〉를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표 8〉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도 있다. 2순위까지 합친 〈표 9〉에서는 학교 근처 식당을 든 경우가 학생식당보다 오히려 1% 더 많으며, 교내 편의점을 든 경우도 23.5%로 크게 늘어난다. 학교 근처 식당이나 편의점이 가장 많이 가는 곳 2순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외 편의점까지 합치면 편의점은 30.5%의 대학생(여학생의 경우 35.0%)에게 가장 식사를 많이 하는 두 군데 중 하나다. 또한 배달음식이 2순위 안에 드는 경우도 10.5%나 된다.

2순위까지 합쳤을 때에는 학년별 차이가 〈표 8〉과 같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학년 별 차이가 나타난다. 학생식당 이용 비율은 4학년이 가장 높으며(65.5%), 3학년이 가장 낮다(48.1%). 3학년은 대신에 편의점 이용비율이 가장 높는데, 교내외의 편의점을 합치면 38.4%나 되어, 4학년보다 약 15%나 더 높다. 이처럼 세 번째로 자주 찾는 점심식사 장소가 된 편의점에서의

〈표 9〉 수업이 있는 날 점심식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곳(1순위 + 2순위)

(단위: %)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명)	200	100	100	40	53	52	55
학생식당	58.0	58.0	58.0	60.0	58.5	48.1	65.5
학교 근처 식당	59.0	66.0	52.0	62.5	52.8	59.6	61.8
교내 편의점	23.5	18.0	29.0	22.5	20.8	26.9	23.6
교내 프랜차이즈 식당	10.5	11.0	10.0	12.5	11.3	9.6	9.1
배달음식으로 교내에서	10.5	11.0	10.0	12.5	3.8	15.4	10.9
교외 편의점	7.0	8.0	6.0	10.0	7.5	11.5	0.0
교내 카페	4.0	5.0	3.0	2.5	5.7	1.9	5.5
학교 근처 카페	5.0	3.0	7.0	0.0	9.4	3.8	5.5
기타	4.5	4.0	5.0	2.5	7.5	5.8	1.8
총합	182.0	184.0	180.0	185.0	177.4	182.7	183.6

〈표 10〉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율

(단위: %)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명)	200	100	100	40	53	52	55
거의 없음	22.0	27.0	17.0	25.0	22.6	13.5	27.3
10% 정도	24.0	27.0	21.0	22.5	34.0	28.8	10.9
20% 정도	18.0	18.0	18.0	20.0	15.1	15.4	21.8
30% 정도	16.5	15.0	18.0	12.5	15.1	13.5	23.6
40% 정도	9.5	11.0	8.0	12.5	1.9	13.5	10.9
50% 이상	10.0	2.0	18.0	7.5	11.3	15.4	5.5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점심식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 10〉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1/3이 넘는 36.0%가 30% 이상의 점심식사를 편의점을 이용해서 해결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은 44.0%나 되어 남학생의 28.0%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2개 대학에서 3, 4학년 남녀공학대학 학생 78명과 여대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교내 식당이 맛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면담 시 5명이나 언급한 이 남녀공학대학 응답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율은 30.8%로서 <표 10>의 36.0%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지만, 이는 남학생들의 편의점 이용비율(21.7%)이 더 낮아서 생긴 결과로, 여학생의 편의점 이용비율(43.8%)은 <표 10>과 유사하다. 교내 식당에 대해 상대적으로 맛있거나 맛없다는 언급이 없었던 여대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편의점 이용 비율이 이보다 좀 더 높아서 48.1%나 되었다.

한편 <표 10>에서 전체 점심식사의 50% 이상 편의점을 이용한다는 경우도 여학생은 18.0%나 되어, 남학생의 2.0%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학년별 차이를 보면, 점심식사의 50% 이상을 편의점을 이용해서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3학년(15.4%)이며, 30% 이상인 경우는 3학년(42.4%)과 4학년(40.0%)이 비슷하게 많다. 이 결과와 <표 8>, <표 9>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3학년은 점심식사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1, 2순위 합쳐서 38.4%), 배달음식이 1, 2순위인 경우도 가장 높다(15.4%). 이는 심층면담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적했듯이 3학년이 수업/과제/취업준비 등으로 4학년 이상으로 바쁜 시기라서, 편의점과 배달음식으로 시간 절약을 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편의점에서 사먹는다는 점심식사의 종류는 김밥(61.5%), 라면(57.5%), 샌드위치/빵(47.5%), 도시락(26.0%)의 순서로, 식사시간이 적게 걸리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로부터 편의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혼자서도 빠르고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즉 “점심을 때우기 위해서” 편의점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점심식사의 편의점 이용 비율이 90%나 된다는 수강생 남도비아의 학년별 음식 변천사와 3학년 학기 초 어느 날 편의점에서 식사를 한 과정을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수강생 남도비아의 점심식사 변화과정

	대학생 이전 학교생활	대학 1, 2학년	현재(3학년)
점심 먹는 시간	정해짐	학기마다, 요일마다 다름	
점심 메뉴	정해짐	학생식당, 외부 식당, 배달음식	편의점(90%), 학생식당(10%)
먹는 형태	친구들과 먹음	친구들과 먹음	혼자 먹음(85%)
점심식사의 의미	‘남기면 안 되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시간 내에 해야 하는 행위’	‘새로운 곳에서 맛있는 점심’	‘의례적인 것’

간단히 점심을 먹어야하기 때문에 찾게 되는 곳이 편의점이었는데, 3월 22일 화요일에 편의점에서 ‘킵반’이라는 제품을 먹은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화요일은 공강이 있는데, 이날 점심을 먹으려니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었다. 하지만 뒤에 수업이 있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편의점으로 갔다. 학생식당이 아니라 편의점을 간 이유는 학생식당이 물론 밥을 먹기에 좋은 장소이지만 먹기에 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줄서서 식권사고 줄서서 밥 받고 앉아서 먹다가 식판 정리해야 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낀다. 이에 비해 편의점은 살 때만 번거로우면 되고 먹는 것은 강의실이나 과방에서 먹기 때문에 별로 번거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편의점은 나에게 먹는 공간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편의점을 둘러보는데 먹고 싶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지 못했던 제품이 보였다. CJ에서 나온 ‘킵반’이라는 제품인데, 주로 찌개와 덮밥과 카레 종류가 있고 핫반과 같이 먹을 수 있게 묶여 있다. 뜨거운 물과 전자레인지로 조리하여 먹는 제품이라 간편하게 편의점에서 먹기 좋을 것 같아 순두부찌개를 골랐다. 편의점에 정말 오랜만에 자리가 있어서 한 번 편의점에서 먹어보기로 했다. 건더기가 퍽라면처럼 건조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맛이 없을까 걱정되었으나 조리 후 먹어보니 집 밥 같고 맛있었다. 편의점에서 뜨거운 찌개와 덮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신기해서 앞으로 편의점에서 자주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먹는 것과 혼자 먹는 것이 처음은 아니라서 편의점에서 혼자 먹는 것에 큰 감흥은 없었지만 학생식당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조금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강생 남도비아(3학년)의 참여관찰일지>

이상에서 살펴본 ‘점심식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가장 선호하는 곳’과 일치한다는 응답은 61.5%,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5%로 나타났다.

〈표 12〉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가장 선호하는 곳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명)	77	30	47	12	19	26	20
거리가 가까워서	70.1	76.7	66.0	58.3	63.2	73.1	80.0
가격이 싸서	58.4	60.0	57.4	66.7	52.6	50.0	70.0
식사를 빨리 할 수 있어서	48.1	56.7	42.6	58.3	52.6	34.6	55.0
동행자들이 좋아하는 곳이라서	10.4	13.3	8.5	16.7	15.8	3.8	10.0
기타	3.9	3.3	4.3	0.0	5.3	7.7	0.0
총합	190.9	210.0	178.7	200.0	189.5	169.2	215.0

흥미로운 점은 남학생은 일치한다는 경우가 70.0%로 여학생의 53.0%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학교 근처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1, 2순위를 합친 경우 66.0% : 52.0%) 반면, 여학생(36.5%)은 편의점 이용 비율이 남학생(26.0%)보다 훨씬 높은 것과 관계 있어 보인다. 〈표 12〉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데도 많이 가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거리가 가까워서”, “가격이 싸서”, “식사를 빨리 할 수 있어서”의 순서로 나타났다.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학교식당을 선호하지 않아도 많이 가는 경우에 그 이유로서 거리와 가격에 대한 언급이 특히 많았다.

Q: 정문으론 요새 안 가?

A: 춥고 멀어. 학식이 싸고 편해.

<수강생 박수종의 참여관찰일지에서, 여학생 23세>

김아영(가명)은 주로 학식을 먹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 역시 “1) 가깝다. 2) 가격이 저렴하다. 3) 밥 종류를 먹기 때문에 든든하다.”가 있었다. 학교 내에는 편의점과 학생식당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듯 했으며, 음식점이 학교 내에 따로 존재하지 않기에 학생식당을 즐겨 찾는 것으로 보였다.

<수강생 김소현의 심층면담일지에서, 여학생 22세>

〈표 13〉 점심식사 장소나 메뉴 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것들(복수응답 중 일부)

(단위: %)

답안	총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명)	200	100	100	40	53	52	55
시간표와 여유시간	80.5	77.0	84.0	85.0	73.6	84.6	80.0
돈	78.0	80.0	76.0	75.0	81.1	78.8	76.4
동행자(친구/선후배 등)	56.0	53.0	59.0	52.5	52.8	59.6	58.2
식당까지의 거리	51.5	46.0	57.0	55.0	39.6	51.9	60.0
학식의 메뉴와 맛	51.0	49.0	53.0	50.0	49.1	46.2	58.2
기분	27.5	24.0	31.0	25.0	30.2	26.9	27.3
아침, 저녁식사 여부	24.5	24.0	25.0	15.0	32.1	26.9	21.8
날씨	13.5	10.0	17.0	7.5	5.7	23.1	16.4
다이어트와 칼로리	9.0	4.0	14.0	5.0	9.4	11.5	9.1
영양	7.0	8.0	6.0	5.0	3.8	1.9	16.4
디저트 먹을지 여부	5.0	2.0	8.0	5.0	1.9	3.8	9.1

점심식사 장소나 메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도록 한 〈표 13〉을 보면, “시간표와 여유시간”을 든 경우가 가장 많고, “식당까지의 거리”가 4번째였다. 이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생들이 거리가 가깝거나 식사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식당을 많이 간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표 13〉에서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돈”이라는 것도 〈표 12〉의 “가격이 싸서” 선호하지 않아도 많이 간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 식사장소 및 메뉴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는 “동행자(친구/선후배 등)”와 “학식의 메뉴와 맛”을 들었다.

〈표 13〉에서 남녀 차이가 큰 것은 ‘식당까지의 거리’(11% 차이), 다이어트와 칼로리(10% 차이), ‘시간표와 여유시간’(7% 차이), ‘기분’(7% 차이), ‘날씨’(7% 차이) 등으로,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당까지의 거리’와 ‘시간표와 여유시간’의 차이는

위의 인용사례에서도 보듯이, 여유시간을 중시하며 날씨를 더 고려하는 편인 여학생들이 멀리 있는 식당까지 이동하는 것을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들은 또한 같은 식당도 남학생에 비해서 더 멀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주로 수업을 듣는 곳에서 학교식당, 매점 등 식사를 사먹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바로 옆에 있다’는 응답은 남학생 18%, 여학생 11%로 나타났으며, ‘5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응답도 남학생 69%, 여학생 59%로 차이가 컸다. 이런 경향은 같은 대학에 재학하는 남녀 학생의 응답을 따로 비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3) 점심식사는 누구와 하는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서구 학생들과 달리 점심식사를 친구와 함께 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학교에서 보통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인원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 <표 14>에서 보듯이, 2명 이상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혼자 식사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학교에서의 점심식사 인원이 2명(49%)이나 3명(50%)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4명(32%)인 경우가 많고, 혼자서 하는 경우도 25.5%가 있었다.

<표 14> 학교에서 보통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인원 수(복수응답)

(단위: %)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명)	200	100	100	40	53	52	55
혼자	25.5	23.0	28.0	30.0	15.1	15.4	41.8
2명	49.0	45.0	53.0	47.5	43.4	44.2	60.0
3명	50.0	54.0	46.0	42.5	52.8	51.9	50.9
4명	32.0	42.0	22.0	42.5	35.8	42.3	10.9
5명 이상	15.5	16.0	15.0	25.0	15.1	17.3	7.3
총합	172.0	180.0	164.0	187.5	162.3	171.2	170.9

<표 14>에서 1학년은 ‘4명 이상’이 많은 한편(67.5%), ‘혼자’ 역시 많아서 30.0%나 되었다. ‘혼자’는 2학년(15.1%)이나 3학년(15.4%)에 비해 두 배나 되는데, 이는 조사시점이 5월이라 1학년이 아직 밥 먹을 친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보인다(면담 결과). 한편 4학년은 몰려다니는 경우가 드물어져서, ‘4명 이상’이 18.2%에 불과했다. 대신 ‘혼자’가 크게 늘어서, 1학년보다도 많은 41.8%나 되었다. 이는 함께 어울릴 친구가 줄어들고 바빠지기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학년과의 면담 내용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Q: 1년 휴학하고 오니까 주위에 아는 애들 진짜 없어.

A: 그치.(웃음) 웬지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애.

Q: 요즘 점심은 어떻게 해? 누구랑 같이 먹어?

A: 나 거의 혼자 먹지. 화요일엔 너랑 먹고.

Q: 나도. 생각해보면 난 1학년 때부터 자주 혼자 먹었던 것 같아. 넌?

A: 나는 1학년 때는 혼자 먹는 거 좀 힘들었어. 나 아직도 밖에 나가서는 혼자 못 먹어. 학식은 혼자 잘 먹어도.

<이영빈의 비공식면담에서, 여대 여학생, 24살>

찬경이(가명)와 나는 1,2학년 때 같이 식사를 하던 과 친구 2명이 어학연수를 간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아니라면 점심시간을 같이 할 만큼 친한 친구가 없어졌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울리는 친구의 수가 적어지게 되면서 ‘혼 밥’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굳이 시간을 맞추어 밥을 먹기에는 서로 바쁘고 연락하기 귀찮아졌기 때문에 ‘혼 밥’을 택하는 점도 생기게 된 것 같다.

<박유영의 참여관찰일지에서, 여학생, 24살>

한편 성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남학생은 ‘3명’이 가장 많고(54.0%) ‘2명’이 두 번째로 많으며(45.0%) ‘4명’도 많은 데 비해(42.0%), 여학생은 ‘2명’이 가장 많고(53.0%) 다음이 ‘3명’(46.0%)이며, ‘4명’(22.0%)보다는 ‘혼자’(28.0%)가 더 많았다. 평균적인 식사인원수가 남학생이 더 많다는 것은 여러 대학에서의 참여관찰 시에도 나타났다. 여학생끼리의 그룹은 2~3명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서, 남학생끼리의 그룹이나 남녀가 섞인 그룹은 4명

이상인 경우가 꽤 많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남학생들이 더 큰 그룹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식사를 같이 할 사람을 구하는 방식의 차이로 보인다. 여학생들은 친한 친구나 선후배가 사전 약속을 해서 만나거나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 친한 사람끼리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명이 넘는 큰 집단의 구성이 어렵다.

아, 나는 점심은 ‘친구들이랑 밥 먹는 시간’이야. 학교에서 수업이 다 달라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점심밖에 없어. 그리고 수업시간 때는 대화도 못 나누잖아? 아무래도 밥 먹는 시간만이 친구들이랑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친구들이랑 먹으려고 노력하지.

<남지은의 참여관찰일지, 남녀공학대학 여학생>

이에 비해서 남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지금 밥 먹으러 갈까?”라고 누군가 말하면 몇 명이 “그래!”하고 함께 간다거나 또는 단톡방에 “나 지금 식사하러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라고 올려서 즉석에서 희망자들이 모여서 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런 방식은 특히 공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공대에 여학생이 드물다는 점도 남학생들의 평균적인 식사 일행의 크기가 커지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처음 학교식당에 ‘맘스터치’가 들어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설레어 했다고 한다. 학교에 학생식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회관에 있고 하나는 정문 근처 국제관에 있다. 강의실이 대부분 정문 근처에 배치되어 있고, 학생회관으로 올라가는 길이 동산이라 학생들이 국제관 학생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그런데 국제관 식당의 메뉴가 맛이 없을 경우, “맘터가자!”라는 식으로 맘스터치를 애용하게 된다고 한다. 학생회관의 메뉴가 국제관보다 맛있지만, 굳이 학관에 가지 않고 맘스터치를 이용하는 이유는 학관까지 가기에 동산이 너무 경사지고 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기간 때는 학관을 더 많이 간다고 한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학관에서 더 가까워서이다.

<남녀공학대학 점심식사에 대한 수강생 남지은의 참여관찰일지>

한편 남녀공학과 여대에서의 식사 인원수의 차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표 15〉 남녀공학과 여대 학생의 혼 밥 경험 비교

답변	공학 남학생	공학 여학생	여대 여학생	계
1) 혼 밥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음	81명 (73.6%)	63명 (67.7%)	37명 (75.5%)	181명 (71.8%)
2) 보통 혼자 먹기도 함	31명 (28.2%)	21명 (22.6%)	24명 (49.0%)	76명 (30.2%)
총 응답자 수	110명 (100%)	93명 (100%)	49명 (100%)	252명 (100%)

은 여대 여학생들이 혼자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다는 것이다. 홀로 먹기와 관련된 2개의 문항에 대한 수강생 조사와 예비조사 그리고 본 설문 조사를 합쳐서 총 252명의 응답결과를 함께 제시한 <표 15>를 보면, ‘혼 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비율은 공학 여학생(67.7%)은 남학생(73.6%)보다 낮은 반면, 여대 여학생(75.5%)은 남학생보다도 약간 높다. 또한 ‘보통 혼자 먹기도 한다.’는 여대 여학생의 비율은 49.0%나 되어서, 남녀공학 학생들에 비하면 거의 2배나 된다. 참여관찰에서도 남녀공학과에 비해서 여대에서 ‘혼 밥’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면담에서도 ‘여대에서 혼 밥을 많이 하고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남녀공학과는 달리 선배가 밥을 사주는 일이 드물다’는 점과 함께 여대와 남녀공학의 2대 차이점으로 언급되는 일이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점심식사 인원수의 성별 차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실제와는 반대라는 사실이다. ‘점심식사 방법과 의미에 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응답(46.0%)이 ‘차이가 없다.’는 응답(28.0%)보다 훨씬 많았으며, ‘차이가 있다.’는 응답자 92명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이 3위로(남학생 50.0%, 여학생 27.5%), 특히 남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6〉은 한편 ‘여자들은 남자보다 멀더라도 맛있거나 먹고 싶은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63.0%나 된다는 것을 보여주

〈표 16〉 점심식사 방법과 의미에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복수응답)
(단위: %)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명)	92	52	40	14	21	24	33
여자들은 남자보다 멀더라도 맛있거나 먹고 싶은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63.0	63.5	62.5	57.1	66.7	70.8	57.6
여자들은 남자보다 후식을 챙겨 먹으려는 경향이 있다.	52.2	50.0	55.0	64.3	52.4	41.7	54.5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는 경향이 있다.	40.2	50.0	27.5	50.0	23.8	37.5	48.5
여자들은 남자보다 메뉴 고르는 데 오래 걸린다.	34.8	25.0	47.5	42.9	42.9	37.5	24.2
여자들은 남자보다 먹는 것 이외에 식사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관심이 있다.	27.2	23.1	32.5	14.3	23.8	25.0	36.4
여자들은 남자보다 가격이 싼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6.5	5.8	7.5	14.3	9.5	4.2	3.0
총합	223.9	217.3	232.5	242.9	219.0	216.7	224.2

는데, 이는 〈표 12〉에서 선호하지 않는 식당을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여학생(66.0%)에게서 남학생(77.6%)보다 10.6% 더 적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상에서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거르거나 선호하지 않는 곳에서 먹는 경우가 많으며, 성별/학년별 차이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대학생들이 점심식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학생들은 점심식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1) 점심식사의 의미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서 대학생들의 점심식사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상적으로 해 왔기에 객관적으로 바라본 적이 없는 ‘점심식사’의 개념화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점심과 간식의 차이 등 식사의 모호한 경계가 나올 때마다 이들은 난해한 표정을 짓거나 명확히 응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격, 신체적 특성, 상황 배경 등에 따라서 점심식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달라지고, 이는 그 사람이 점심식사에 부여하는 의미와 연결된다.

<고혜라의 심층면담일지 ‘종합논의’ 중>

점심식사의 의미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정보제공자는 상당히 당황해하고 웃는 모습을 보였다. 항상 하는 식사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 못내 어색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윤정의 심층면담일지 해석 부분 중>

면담에서 이처럼 점심식사의 의미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설문조사에서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통 분류체계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체질문’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설문조사지에 “나에게 점심식은 ()이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모두 적어달라는 서술형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예비 설문조사, 그리고 본 조사에 모두 이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총 253명의 답을 분류체계분석 방법으로 유형화시킨 결과는 <표 17>과 같다(비교적 언급 수가 많은 상위항목만 제시).

<표 17>로부터 대학생들은 점심식사에 대해서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삶의 행복/즐거움/오아시스’(29.7%)와 ‘힘/에너지/삶의 원동력’(28.1%)을 많이 언급하였으며, 22.7%는 ‘쉬는 시간/여유’를 언급하였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점심식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면서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오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며,

〈표 17〉 ‘점심식사는 내게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내용 유형화 결과(복수응답)

점심식사의 의미		순위	언급한 응답자 비율
긍정적 감정을 갖 게 하는 것	행복/즐거움/오아시스/천국/여행길	1	29.7%
	힘/에너지/삶의 원동력	2	28.1%
	쉬는 시간/휴식/여유	3	22.7%
	소통시간/대화/친구/알아가는 시간/함께하는 식사	4	15.2%
생존에 필요한 것	배 채우는 것/살기 위해 먹는 것/먹어야 하는 것/생존	5	12.5%
	중요한 식사	6	7.4%
	밥	8	6.6%
부정적 감정을 갖 게 하는 것	스트레스/번거로움	7	7.0%
	돈/돈 드는것	9	6.3%
결정해야 하는 것	결정 장애/고민하는 것	10	5.5%
기타	사치(긍정적 의미의 사치와 부정적 의미의 사치가 섞였 음)	11	4.3%

따라서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늘어난 취업 스트레스와 복수전 공/부전공의 강조, 늘어난 과제 등으로 대학생들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점심을 통해 얻게 되고, 학교에서의 시간 중 유일하게 허락된 긴 휴식시간인 점심시간을 통해 숨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답의 의미를 확장해보면, 많은 대학생들에게 점심식사 시간은 지친 하루 중 회복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A(4학년 여대생)에게 점심식사는 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혼자 먹어도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어서 자신의 기분을 업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분을 업 시키는 이유는 그 다음에 있을 오후 수업 때문이다. 연구자가 느끼기에 A에게 점심식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학기 중에 수업 듣는 것은 일상인데 그 일상 중 반인 오후 수업을 위해서는 기분을 업 시켜야하고 A에게 기분을 업 시켜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점심식사인 것이다. 연구자의 견해로 A는 하루의 반인 오후가 좋으려면 점심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A는 점심식사를 간결하게 표현해달라는 요구에 ‘행복’이라 답했다. 인간에게 있어 행복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행복’이라는 표현만으로도 A에게 점심식사는 자신의 삶에서, 최소한 자신의 학기 중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박지현의 심층면담일지 해석 부분>

아노아노. 식사는 단순히 배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친구를 만난다거나 나 자신에게 해주는 보상으로 즐기거나 즐기는 시간인 느낌인데.. 샌드위치는 배 채우고 끝! ‘비빠비빠 아이고 시간 없어’ 이런 느낌이라서요.

<정한솔의 심층면담일지, 여대 2학년>

점심시간에 ‘휴식’, ‘쉬는 시간’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들은 혼자 먹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혼자여야 빨리 먹으니까 식사 후에 소중한 휴식을 할 수 있고, 또 점심시간이니까 과제를 하는 대신 오래 쉬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Q: 어떨 때 식사라고 생각하세요?

A: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즐겁게 맛있는 거 먹는 거.

Q: 그러면 시간이 꼭 있어야 되겠네요.

A: 네.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야죠.

<박수종의 참여관찰일지, 남녀공학대학 4학년 남학생>

Q: 그럼 너에게는 (점심시간이)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네? 일종의 휴식?

A: 그치. 신체적, 정신적 휴식. 뭔가 쉬고 있는 거를 합리화하는 것 같아. 그냥 쉬고 있으면 좀 죄책감도 들잖아. 과제도 있고 그러면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내가 점심을 먹고 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아?

(중략)

Q: 오~ 너는 그럼 (식사외 간식) 다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 먹는 것의 의미가 더 강한거지? 휴식이라는 느낌이 크니까?

A: 다른 사람이랑 먹으면 그거는 일이야. 어.

<한다숨의 심층면담일지, 여대 3학년>

이에 비해서 ‘소통시간/대화/친구/알아가는 시간/함께하는 식사’ 등, 소통이나 관계 맺는 시간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는 15.2%의 학생은 밥을 먹는

것보다 친구와 만나 소통을 한다는 사실을 훨씬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점심은) 먹어야하는, 약간 의무적인 것? 아 학교를 다닐 때는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게는 식사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지 식사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략> 점심시간에 누군가와 만나서 밥을 먹었다면 즐겁고 그 사람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겠지만, 혼자 먹었다면 습관적으로 밥을 먹었다 정도의 의미...인거 같은데. 습관적인 시간? <중략> 누군가와 함께하는 점심시간은 제게 그냥 누군가와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무언가를 먹는 것은 주가 되지 않죠. 먹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요!

<정한솔의 참여관찰일지, 여대 4학년>

먼저 정보제공자 A(2학년 여학생)와 정보제공자 B(3학년 여학생)에게서 유사한 점을 발견하였다. '점심식사 시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것으로 두 사람 모두 밥을 먹는 것 외에, A는 '밥을 함께 먹을 때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 혼자 밥을 먹을 때는 그냥 때가 되니 먹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B의 경우에도 '함께 먹을 때는 교제의 시간,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때우는 것'으로 답하였다. 이는 매우 유사하며 밥을 먹는 것 외에 점심식사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혼자 먹는 것에 대해서도 두 정보제공자들의 의견은 비슷했다.

<이소현의 심층면담일지 종합논의 중>

이들에게 점심시간이 소통/관계 맺는 시간으로서 중요한 것은 점심식사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친구와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도 있다.

과거 고등학교 때는 점심시간 말고도 매일 붙어 다녔으니까 따로 얘기할 시간이 많아서 그냥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대학에 와서는 전공수업 끝나고 동기들이랑 점심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강해진 것 같아.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엄서연 심층면담일지, 여학생>

Q: 그렇다면 점심식사는 너에게 그저 먹는 것의 의미야? 아니면 그 이상이야?

A: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혼자 먹으면 그냥 밥일 뿐이고, 친구랑 먹으면 같이 그 시간을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어. 거창한 것 같지만 같이 먹으

면 좋아.

Q: 응 그건 나도 그래. 이게 중요해 친구랑 같이 밥 먹으면서 정보공유도 하고 사실 다들 바쁘니까 얼굴 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 하면 너무 좋지.

A: 맞아. 밥 때라도 같이 얼굴 보면 좋지. 혼자 먹으면 그냥 밥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최원경의 심층면담일지, 여대 3학년>

예린(여대생, 24세)은 밥을 먹는 시간이 학교 안에서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이라고 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끊지 않고 연결해서 끝까지 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일 경우 점심식사를 할 때 주로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하루 중 점심식사를 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장 길고 중요한 이야기를 친구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동행자와의 점심식사 시간이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자리, 교류의 시간인 셈이다.

<진화성의 심층면담일지 해석 부분>

흥미로운 점은 ‘휴식’이라는 의미 부여는 남학생이 더 많이 하고, ‘대화/소통’이라는 의미 부여는 여학생이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다. 위의 서술형 문항에서 남학생은 19%가 (대화/소통은 언급 안 하면서) ‘휴식’을 언급했고 7%만이 ‘대화/소통’과 ‘휴식’을 함께 언급하였다. 이에 비해서 여학생은 15%가 ‘휴식’만을 언급했고, 21%는 ‘대화/소통’과 ‘휴식’을 함께 언급했을 정도로 ‘대화/소통’을 남학생보다 훨씬 더 중시하고 있었다.

한편 점심시간의 의미로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으로서, ‘배를 채우는 것/살기 위해 먹는 것’(12.5%)이나 ‘중요한 식사(세 끼 식사 중에서 중요한 식사라는 의미)’(7.4%) 등 식사로서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거나, 또는 단순히 ‘밥(6.6%)’ 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응. 내가 원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 내가 선택권 없이 먹는 거니까 ‘때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최원경 심층면담일지에서, 여대 3학년>

3학년이 되니 복수·부전공 수업도 다 다르게 듣고 전공수업도 같이 듣는 거의 없다보니 혼자 먹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점심식사는 ‘의례적인 것’으로 의미가 변하였다. 의례적인 성격이 부여된 이유는 점심식사가 <먹고 싶은 것은 딱히 없으나 배가 안 고프는 것은 아니고, 다음 수업을 위해서 무언가 먹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배가 고프지만 나 자신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먹고 싶은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굶기에는 무언가 억울한 감정이 든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점심을 먹는데, 이것이 현재 나의 점심식사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남도비아의 자기문화기술지(self-ethnography)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스트레스/번거로움’(7.0%)이나 ‘돈’(돈이 든다는 의미)(6.3%) 등의 부정적 감정의 의미였다. 점심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돈이 들며 따라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많은 것은 ‘결정장애/고민하는 것’(5.5%)인데, 무엇을 먹을지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의미부여를 한 것이다. 이외에 ‘사치’라고 언급한 경우도 4.3%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작은 사치의 시간을 뜻하며,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점심 먹는다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사치라는 것을 뜻한다.

대학생들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의미 부여를 반드시 한 가지씩만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 학생이 두세 가지의 의미 부여를 동시에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것들과(삶의 낙, 삶의 이유, 한줄기의 빛, 사막의 오아시스,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것들(생존, 일단 살기 위해 먹는 것)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사람이 학년이나 시점에 따라서 의미부여를 다르게 하기도 한다.

(2) 점심식사의 조건

점심식사에 대해서 때우는 것(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들은 ‘점심’과 ‘점심식사’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점심을 때우는 것’은 ‘점심’일 수는 있지만 ‘점심식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점심식사’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밥과 국/찌개가 있는 식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호

에 따라서 면 종류나 햄버거도 ‘점심식사’의 범주에 넣으며, 같은 밥 종류라도 편의점이나 분식집에서 사먹는 김밥은 ‘때우기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점심식사’가 아닌 ‘점심’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생 23명(남학생 7명, 여대 여학생 9명, 남녀공학 여학생 7명)의 ‘학교에서의 점심식사의 종류’에 대한 분류체계(taxonomy) 표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39.1%(여학생 6명, 남학생 3명)는 ‘점심(때우는 식사)’과 ‘점심식사(여유 있게 제대로 먹는 식사)’의 두 가지로 분류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류방식으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의 식사’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의 식사’로 분류하였다.⁸⁾ 43.5%(여학생 8명, 남학생 2명)는 ‘교내 식당에서 먹는 것’과 ‘외부 식당에서 먹는 것’으로 분류했으며, 이 중 5명은 이 두 가지 외에 편의점 식사 또는 배달음식 식사를 추가하여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방식에서도 ‘외부 식당에서 먹는 것’은 시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분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다.⁹⁾

‘점심식사’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도록 한 <표 18>에서도 절반인 49.0%는 ‘식사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를 선택했는데, 이는 ‘충분히 배가 불러야 한다.’(50.0%)와 함께 가장 많이 선택된 조건이다. 이외에는 ‘보통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대에 먹어야 한다.’(46.5%)와 ‘누군가와 함께 먹어야 한다.’(26.0%)가 많이 선택된 조건들이다. 이 중 시간대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언제를 ‘보통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대’로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12시~1시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73.2%), 1시~2시(43.7%), 11시~12시(36.2%)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2시~1시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좀 더 폭을 넓힌 11시~2시도 점심시간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8) 이 중 2명은 이외에 금전적 여유 여부에 따른 구분까지 추가하였다.

9) 이 두 가지 분류방식 이외에는 식사 메뉴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3명)와 누구와 먹는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1명)가 소수 있었다.

〈표 18〉 ‘점심식사’의 조건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단위: %)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명)	200	100	100	40	53	52	55
충분히 배가 불러야 한다.	50.0	53.0	47.0	47.5	52.8	46.2	52.7
식사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	49.0	44.0	54.0	55.0	41.5	48.1	52.7
보통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대에 먹어야 한다.	46.5	47.0	46.0	40.0	50.9	46.2	47.3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엇인가 먹었다면 모두 점심사이므로 조건이 따로 필요 없다.	28.5	25.0	32.0	30.0	32.1	28.8	23.6
누군가와 함께 먹어야 한다.	26.0	29.0	23.0	25.0	18.9	32.7	27.3
영양소를 제대로 갖춘 음식을 먹어야 한다.	17.5	21.0	14.0	30.0	11.3	9.6	21.8
밥이어야 한다.	16.5	18.0	15.0	15.0	17.0	13.5	20.0
기타	3.0	4.0	2.0	0.0	1.9	5.8	3.6
총합	237.0	241.0	233.0	242.5	226.4	230.8	249.1

한편 〈표 18〉에서는 흥미로운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점심식사의 조건으로서 ‘충분히 배가 불러야 한다.’를 가장 많이(53%) 선택하고 또한 ‘영양소를 제대로 갖춘 음식을 먹어야 한다.’(21%)를 여학생들(14%)보다 많이 선택했다. 이처럼 남학생들은 ‘식사의 양과 질’을 중시하는 데 비해, 여학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5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차이는 여학생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한 소통과 관계 맺기’를 남학생들보다 중시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의 〈표 16〉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먹는 것 이외에 식사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경우가 여학생 32.5%, 남학생 23.1%에게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3) 점심식사 시간에 중시하는 것

‘점심시간을 활용한 소통과 관계 맺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여학생들

이 ‘점심식사의 시간적 여유’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많은 여학생들은 점심식사 시간에 친구와 깊은 대화를 하는 등 여유시간을 즐기는 것을 학교에 오는 낙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충분한 점심시간’은 최소 1시간은 넘어야 한다고 보았고,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자주 지켜보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식사를 하면서 ‘수다를 떠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이준영(가명, 남자)은 ‘점심식사 중 수다 여부’가 성별의 차이라고 하였다.

A: 그죠. (남학생들은) 잘 안 떠들어요. 막 여자들처럼 수다는 안 떨죠.

Q: 여자들처럼 수다 떠는 게 뭐야?

A: 여자들은 막 한 입 먹고 오 분 동안 수다 떨고 그러잖아요.

Q: 그럼 여대 학교 애들은 어떨 것 같애? 전체적으로 점심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애?

A: 네. 한 한 시간? 기본?

Q: 기본 한 시간?

A: (고개 끄덕끄덕)

<이영빈의 심층면담일지, 남학생, 20>

한편 여학생이 식사하면서 하는 대화의 양을 남학생의 2배 정도로 보고 있는 손성우(가명, 남자)는 여학생들의 이러한 대화를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있었다.

Q: 혹시 남녀가 밥을 먹을 때 패턴이나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A: 아 있어요. 제가 누나가 있는데요, 남자들의 경우 정말로 식사를 하기 위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여자들은 밥 먹을 때 약속을 잡는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남자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더욱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맛있는 식사를 했을 때, 만족감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추임새가 진짜 큰 듯해요.

Q: 맞아요, 제가 바로 추임새 큰 1인입니다, 맛있으면 몸부림을 치죠, 기뻐서. 그러면 남자들은 주로 밥 먹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A: 음, 게임얘기? 아 미팅이나 소개팅하면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여자들보

다 좀 밥을 먹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Q: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정도가 10이라면?

A: 남자들은 한 절반정도 5?

<신동주의 심층면담일지, 남학생, 22>

여학생들이 식사와 대화 이외에 또 하나 중시하는 것은 ‘식당의 분위기와 공간 즐기기’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는 것은 여학생끼리 또는 남녀 학생이 섞여 있을 때뿐으로, 남학생들끼리는 이런 식당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남학생끼리 가면 받게 되는 시선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점도 있었다.

A: 여기는 진짜. 남 선배들이 여 후배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는 곳.

Q: 우와 그렇군요. 다른 식당에 비해 레스토랑 같네요.

A: 맞아요. 분위기. 여기 데려간다는 건 속이 뻘뻘 보이죠.

Q: 그러네요. 아. 그런데 여자들끼리도 많이 왔네요?

A: 여자들끼리는 잘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 즐기고 싶을 때?

Q: 남자들끼리 와본 적 있어요?

A: 여기요? 절대 안가죠.(꺼림직 한 표정) 남자애들이랑은. 그냥 나가서 먹죠.
(중략)

Q: 분위기?

A: 그렇죠. 분위기. 그래서 (식당에) 가면 먹는 것보다 이야기한다거나. 남자들끼리 가면 ‘밥을 먹으러간다’ 이려면 진짜 밥만 먹고 오는데, 여자들끼리 가면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겨야 한다는 느낌?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Q: 인테리어도 많이 봐요.

A: 맞아요. 맞아요.

<박수종의 심층면담일지, 남학생, 25>

이처럼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것 외에 대화나 분위기를 즐기는 여유도 중시하기 때문에, 남학생보다 적은 인원의 사람들과 밥을 먹으며, 더욱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

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여학생들은 대화하기 편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나 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식사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많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먹는 것 자체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성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점심식사에서 맛을 추구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업이 있는 날 점심식사와 관련된 행동 중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한 <표 19>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맛을 추구할 것’이라는 학생들의 인식(면담 결과)과는 달리,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은 남학생(50.6%)이 여학생(37.1%)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점심식사를 때우는 식으로 먹는다.’는 응답은 반대로 여학생(51.7%)이 남학생(36.5%)보다 그만큼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이 여유 있는 점심시간을 중시하는 편이라고 해도 이런 여유가 모든 여학생에게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저학년에는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기 위해 노력했지만 요즘은 때우는 식으로 먹는 편’이라는 응답이 남학생(27.0%)보다 여학생(33.0%)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응답의 비율은 증가하였다(<표 20> 참조).

‘입학직후와는 달리 때우는 식으로 먹게 되었다’는 응답자 60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이유로는 60%(남학생 66.7%, 여학생 54.5%)가 ‘저학년 때는 새로운 식당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사람 사귀는 것

<표 19> 수업이 있는 날 점심식사와 관련된 행동 중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복수응답 중 일부)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	174명	85명	89명	34명	47명	42명	51명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	43.7%	50.6%	37.1%	35.3%	42.6%	52.4%	43.1%
점심식사를 때우는 식으로 먹는 편	44.3%	36.5%	51.7%	44.1%	38.3%	52.4%	43.1%

〈표 20〉 대학입학 이후 학교에서의 점심식사가 달라진 점(복수응답)

(단위: %)

답안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 응답자 수(명)	200	100	100	40	53	52	55
입학직후에나 지금이나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	33.0	39.0	27.0	32.5	32.1	28.8	38.2
입학 직후에는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기 위해 노력했는데, 요즘은 때우는 식으로 먹는 편	30.0	27.0	33.0	22.5	26.4	32.7	36.4
입학직후에나 지금이나 점심식사는 때우는 식으로 먹는 편	28.0	28.0	28.0	35.0	28.3	30.8	20.0
입학직후에는 점심식사를 때우는 식으로 먹었는데, 요즘은 맛있게 먹기 위해 노력하는 편	15.5	17.0	14.0	12.5	18.9	9.6	20.0
기타	2.5	3.0	2.0	5.0	0.0	3.8	1.8
총합	109.0	114.0	104.0	107.5	105.7	105.8	116.4

이 중요해서 학교 밖에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식사하는데,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가 바빠지면서 점심식사의 중요도 자체가 떨어짐’(48.3%)과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제가 많아져서 점심식사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 어려워짐’(25.0%) 등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답과 ‘다른 비용 쓸 일이 늘어나서 점심 비용을 줄이게 됨’(45.0%),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구들과 수업시간이 달라져서 식사를 같이 할 친구가 줄었음’(36.7%)도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중 학년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답에 성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제가 많아져서 점심식사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 어려워짐’은 남학생은 14.8%만 선택한 데 비해서, 여학생은 두 배가 넘는 33.3%가 선택하였다. 왜 점심시간의 여유를 중시하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시간부족을 더 크게 느껴서 점심식사 시간까지도 아끼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관련 있는 것은 아직 대다수 기업의 남자 선호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취업에 불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면

담 결과), 취업 스트레스도 더 심하게 받는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대학생들은 점심식사를 매우 중요한 식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에서의 힘든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점심식사를 거르거나 편의점 등에서 매우 낮은 방식의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5. 맺는 말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30여개 대학에서의 점심식사에 대한 참여관찰과 60여명의 대학생 대상 심층면담, 그리고 2회의 소규모 서술형 설문조사와 1회의 200명 대상 본 설문조사 및 한 대학에서의 추가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 지역 대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점심식사 방식과 이들에게 점심식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모든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설문조사 자료는 엑셀파일에 입력하고 코딩하여, 주제 분석과 내용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 분류체계분석/성분분석과 원인연쇄분석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4개의 연구 질문을 귀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이 글에서는 이 중 대학생들의 점심식사방식과 점심식사의 의미, 성별/학년별/남녀공학여부 별 차이 등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수업이 있는 날 하루 3회의 식사를 하는 대학생은 1/3도 안 된다. 하루 2회 이내의 식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점심식사는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보통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는 2/3 정도 (68.5%)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안 하거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업 및 다른 이유로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것과 학교에는 먹고 싶은 메뉴가 없다는 것이다. 공부와 취업 준비 등으로 바쁜 고학년의 경우, 메뉴

문제로 식사를 못한다는 비율은 저학년에 비해서 낮은 반면, 수업이나 다른 일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식사를 못한다는 비율은 더 높았다. 특히 4학년의 80.0%와 3학년의 52.6%가 ‘수업으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에 점심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점심식사를 보통 학교에서 한다는 68.5%의 학생들 모두가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점심식사 장소 2순위 안에 포함된다는 비율이 각각 58.5%와 59.5%인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교내 식당과 학교부근 식당, 그리고 교내 프랜차이즈 식당(10.5%)은 식사를 “제대로”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점심식사 장소인 편의점(30.5%)은 도시락도 팔지만 이보다는 주로 김밥, 라면, 샌드위치/빵 등으로 “때우는” 점심을 먹기 위한 곳이다. 특히 식사의 양을 중시하지 않으며, 식사보다 대화/소통이나 과제를 위한 시간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여학생과 “매우 바쁘다”는 학년인 3학년의 편의점 의존도는 더욱 높다(각각 35.0%, 38.4%). 점심시간 없는 수업시간 편성으로 인해서 점심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점심시간대(11시~2시)에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고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거르거나, 하더라도 때우는 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때우는 것인 ‘점심’과 제대로 된 식사인 ‘점심식사’를 구분하며,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점심식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충분히 배가 불러야 한다.’(50.0%), ‘식사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49.0%), 또는 ‘보통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대에 먹어야 한다.’(46.5%)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누군가와 함께 먹어야 한다.’(26.0%)가 네 번째로 많이 나타난 조건(남학생 29.0%, 여학생 23.0%)일 정도로 혼자서는 점심을 안 먹고 마는 학생들이 많았다. 반면에 혼자서도 점심을 먹는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남학생의 23.0% 여학생의 2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대의 여학생들은 혼자서도 점심을 먹는다는 경우가 남대공학 남학생(28.2%)이나 여학생(22.6%)보다 훨씬 많은 49.0%나 된다. 대다수는 2명 이상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여학생

은 2명이 함께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에 비해서 남학생은 3명이 함께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4명 이상의 식사 비율도 남학생이 더 높았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점심식사’에 대해 대학생들은 ‘삶의 행복/즐거움/오아시스’(29.7%), ‘힘/에너지/삶의 원동력’(28.1%), ‘쉬는 시간/여유’(22.7%), ‘대화/소통시간’(15.2%) 등의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배를 채우는 것/살기 위해 먹는 것’(12.5%) ‘단순히 밥’(6.6%)과 같이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번거로움’(7.0%), ‘돈’(6.3%)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이 중 ‘쉬는 시간’은 남학생(19%)이 여학생(15%)보다 좀 더 중시하는 반면, 여학생(21%)은 남학생(7%)보다 ‘대화/소통시간’을 많이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소통과 관계 맺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여학생들은 ‘점심식사’의 조건으로서 ‘시간적 여유’(54%)를 중시하였으며(남학생은 44%),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의 충분한 시간확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남학생들이 점심식사의 조건으로서 ‘충분히 배가 불러야 한다.’(53%)는 답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여학생은 47%), ‘영양소를 제대로 갖춘 음식을 먹어야 한다.’(21%)는 것을 여학생(14%)보다 중시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점심식사’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은 실제로는 ‘때우는’ 식으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를 원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가장 선호하는 곳’과 일치하는 경우는 남학생의 70%, 여학생의 53%에 불과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이유로서 가장 많이 든 세 가지는 1) 거리가 가까운가(70.1%)와 2) 싼 가격(58.4%), 그리고 3) 빨리 먹을 수 있는가(48.1%)를 기준으로 식사장소를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즉 시간과 돈 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때우는’ 점심을 많이 먹고 있었으며, ‘저학년에는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기 위해 노력했지만 요즘은 때우는 식으로 먹는 편’이라는 응답도 남학생(27.0%)보다 여학생(33.0%)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이런 응답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2) 논의와 점심식사 방식의 개선을 위한 제언

대학생들이 점심식사를 매우 중요한 식사로 생각하고 학교에서의 힘든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건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거르거나 때우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점심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면담에서도 3, 4학년 학생들이 “이제는 내 몸이 1, 2학년 때와 달라져서 오후 수업 전에 뭐라도 챙겨먹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는 등 식사습관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걱정되는 발언을 한 경우가 10명 이상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일로 넘겨 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점심식사를 거르거나 ‘때우는’ 경우가 앞으로 출산을 하게 될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점심식사’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야 할 것이다. 즉 대학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현재와 같은 식사방식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한다. 1988년 이루어진 노정미·유영상(1989)의 연구에서 이미 남녀 학생 모두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의 병이 많다는 점을 밝힌 바 있는데, 현재의 대학생들은 식사가 더욱 불규칙해졌다. 따라서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고 보다 규칙적으로 제대로 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환경의 제공을 위한 노력이 대학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는 우선 학생들이 수업시간 때문에 점심식사를 못하는 일을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점심시간 없는 수업시간’ 운영은 1981년부터 실시한 졸업정원제로 인해 갑자기 30%나 늘어난 정원이 유

발한 교실부족 문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다. 그러나 교실의 사용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대학의 재정적 이익이 학생들의 건강을 악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국가적 손해를 우선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 점심시간을 다시 만들거나 또는 점심시간 대에는 되도록 수업 편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생들이 규칙적인 점심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일부 학생들이 우려했듯이 점심을 위한 줄을 견딜 수 없이 길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식당 및 식당 공간을 더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학생들이 점심시간대로 여기는 11시부터 2시 사이의 수업 편성을 골고루 줄이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안하는 이유로 ‘학교에는 먹고 싶은 메뉴가 없어서’를 든 경우가 많다는 것은 각 대학에서 교내 식당 음식의 질과 맛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30여개 대학에서의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결과를 보면 “학식이 맛있다.”고 알려진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식당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식당 이용이 많은 것은 거리가 가깝고 가격이 싸며,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조차 너무 비싸게 여겨서, 더 가격이 싼 편의점 음식을 먹기도 한다(특히 용돈이 떨어지는 월말에). 이런 편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학교식당 음식이 현재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용할 마음이 우리나라에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메뉴의 보급이나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한 교내 식당 음식의 질에 대한 평가 등의 노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학생들의 편의점(매점 포함) 이용 식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의 이용이 많다는 점에서, 교내 편의점에서의 점심식사가 더 질 높고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많은 학생들은 김밥(61.5%), 라면(57.5%), 샌드위치/빵(47.5%) 등 혼자서도 빠르고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즉 “점심을 때우기 위해서” 편의점을 찾고 있다. 따라서 편의

점에서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와 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교내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학생들이 비닐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워 먹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유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더 건강한 방식으로 데워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도구의 사용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식을 더 편안하고 쾌적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테이블과 의자를 교내 편의점 근처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시간이 확보된 경우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점심식사를 거르거나 ‘때우는’ 식의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 취업과는 거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매우 많다고 인식하는 3학년 학생들이 ‘때우는’ 방식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4학년에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고, 적어도 3학년부터는 점심시간을 줄여서까지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면담 결과).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대학 졸업생 취업 기회의 축소’와 ‘자기계발 서사’의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적어도 점심시간 1시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과 대화/소통을 하면서 여유 있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사회에서 대학생들에게 가하는 정신적 압박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현장연구 기간이 총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한계를 갖는다. 대신에 ‘현장연구실습’ 수업을 통해서 수강생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한두 명의 연구자만으로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도 얻기 어려운 많은 양의 자료를 비교적 단기간에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수강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참여관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연구방법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제공자들의 속마음에 대한 자료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강생들과의 공동연구방법은 다른 현장연구실습 수업 담당자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방식은 연구방법 중심 수업에서의 수강생 교육에 다른 방식의 수업보다 훨씬 효과적이다(이에 대해서는 이용숙·유창조·김영찬 2013 참조) 수강생들은 공동연구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고, 지도교수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개선을 해나가면서, 인류학적 현장연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은 연구방법의 적용 면에서도 상당히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장연구실습 1> 수업의 후반부에 이 수업에 이은 <현장연구실습 2 & 3> 수업에서 진행할 개별적인 현장연구계획서 작성을 하면서, 진행 중인 공동연구 경험을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현장연구실습 수업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로 지도교수와 수강생들이 이런 방식의 공동연구를 실시한다면, 대학생들의 문화이해에 기여를 하는 한편 학생들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6년 5월 31일, 논문심사일: 2016년 7월 2일,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14일

참고문헌

노정미·유영상

1989 “서울지역 대학생의 외식실태 및 기호도 조사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27(2): 65-74.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2015년 식품 소비량 및 소비행태 조사』

박경애

- 2003 “경북 일부 지역 남, 녀 대학생들의 식품기호도와 식습관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3(6): 527-541.

박미성·안병일

- 2014 “식품소비 라이프스타일이 가공식품 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군집분석과 매칭 기법을 이용하여,” 『농촌경제』 37(3): 25-58.

박성원·신동일

- 2014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공동체 참여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 103-158.

이용숙

- 2003 “여대생과 남녀공학 대학생의 학교생활 비교연구,” 『열린교육연구』, 11(2): 399-432.
- 2011 “‘우수수업상’ 수상교수의 수업유형과 특성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방법연구』 23(1): 175-211.
- 2016 “현장연구 전체 과정에서의 분류체계분석과 성분분석 활용방법 교육을 위한 실행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9(1): 3-50.

이용숙·유창조·김영찬

- 2013 “대학 신규 교과목 개발을 위한 실행연구: ‘신제품 마케팅 에스노그라피.’” 『교육인류학 연구』 16(1): 65-100.

이진미·최성경·이혜영

- 2000 “여대생의 행동 유형에 따른 점심식사 이용실태 분석,” 『외식경영연구』 3(1): 151-158.

이희분·유영상

- 1995 “보문/서울지역 대학생의 점심식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3): 147-154.

전예숙·최미경·배운정

- 2015 “일부 대학생의 거주형태에 따른 야식 및 영양소 섭취 상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4(2): 216-225.

진양호·권혁성·이혜련

- 2014 “주거형태에 따른 대학생 식습관 및 외식행태 연구,” 『외식경영연구』 17(1): 287-3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2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Brevard, Patricia B. and Crystal D. Ricketts
 1996 “Residence of College Students Affects Dietary Intake, Physical Activity, and Serum Lipid Levels,”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96(1): 35-38.
- Costa, Paul T. and Robert R. McCrae
 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653-665.
- Deliens, Tom, Benedicte Deforche, Ilse De Bourdeaudhuij, and Peter Clarys
 2015 “Determinants of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ur in University Students: a Qualitative Study Using Focus Group Discussions,” *BMC Public Health* 15: 201.
- Driskell, Judy A., Brian R. Meckna, and Narissa E. Scales
 2006 “Differences Exist in the Eating Habits of University Men and Women at Fast-food Restaurants,” *Nutrition Research* 26(10): 524-530.
- Lee, Youngmee, Wookyoun Cho, and Yujin Oh
 2012 “Comparison of Eating Behavior Between Commensality and Solo-eating of University Students by BMI,”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7(3): 280-289.
- Lupi, Silvia, Francesco Bagordo, Armando Stefanati, Tiziana Grassi, Lucia Piccinini, Mauro Bergamini, and Antonella De Donno
 2015 “Assessment of Lifestyle and Eating Habit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Northern Italy,” *Annali dell’Istituto Superiore di Sanità* 51(2): 154-161.
- Racette, Susan B., Susan S. Deusinger, Michael J. Strube, Gabrielle R. Highstein, and Robert H. Deusinger
 2005 “Weight Changes, Exercise, and Dietary Patterns During Freshman and Sophomore Years of College,”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3(6): 245-251.
- Seymour, Michele, Sharon L. Hoerr, and Ya-Li Huang
 1997 “Inappropriate Dieting Behaviors and Related Lifestyle Factors in Young Adults: Are College Students Different?,”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29(1): 21-26.
- Wen, Tzu-Hsing, Wei-Ling Tchong, and Gregory S. Ching
 201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Their Eating Habi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Technology* 5(2): 146.

Wilson, Amanda, Deborah Fowler, Jinxue J. Yuan, and Ben K. Goh

2012 “Food Service Preferences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The Bulletin* 80(1).

<자료>

중도일보

2016 “2016 청년들은 ‘혼밥<혼자먹는 밥>고수’ ,” 2016. 05. 18일자(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5180392, 2016. 05. 28 접속)

중앙일보

2016 “‘혼밥족’ 이유, 세대별로 달라요”, 2016. 5. 30일자(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5180392, 2016. 05. 30 접속).

〈부록 1〉 자신의 점심식사 경험을 성찰적
자기문화기술지(self-ethnography) 형식으로 작성한 사례

(3학년 이소현)

<앞 부분 생략>

그렇게 부푼 기대를 품고 2014년도에 입학은 하였지만 나의 낮가림 때문인지 아는 ‘선배’들도 같이 밥을 먹을 ‘동기’들도 없었다. 그때부터 1학년인 나는 주로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점심 때만 되면 북적북적한 학생식당은 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고, 언젠가 한번 학생식당에 가서 발권을 하려고 하니 사용법을 알지 못해 그냥 나온 적도 있었다. 이쯤 되면 새내기 때의 1년간 나의 점심식은 학교생활에 있어 ‘애물단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점심 식사’라는 개념 자체가 나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후 수업이 많았지만 점심을 대충 때우거나 거르기 일쑤였고 학기 초반에는 밥을 먹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같은 인천 출신에 동네까지 비슷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1~2주에 한 번 정도는 그 친구와 밥을 함께 먹었다. 우리는 주로 10분 정도면 조리가 되는 밥버거 가게에 가서 사먹었는데, 가게 내부에서 먹은 것은 1~2회 정도였던 것 같다. 주로 음식을 포장해 먹은 장소는 4월~5월이었기에 교내 야외의자에 앉아 식사를 했고 혹은 교내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즉석김밥 등 빨리 조리되는 음식을 먹기도 했다. 순수 식사 시간은 보통 15~20분 이었고, 이 짧은 시간동안 우리는 특별한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다.

<중략>

2학년이 된 나는 우리학과에 전과한 친구와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서 1학년 때 이미 한 번 발걸음을 돌린 학생식당에 발을 붙이게 되었다. 친구가 먼저 발권하는 것을 보고 나도 흥내를 내며 무사히 발권하는 데 성공하였고 내가 선택한 메뉴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밀반찬은 먹고 더 먹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잔반처리도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친구를 통해 일종의 모방을 하면서 나는 ‘일반적인’ 점심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있어 나의 점심식사는 이렇게 ‘흉내 내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했던 학생식당은 한 번의 식사 후 나에게 더 이상 그러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그 후로도 일 년 내내 두세 번 정도만 밖에서 식사를 하였던 나를 친구는 학교 밖 이 곳 저 곳을 소개해 주며 데려가 주었고, 나는 비로소 새내기와 같은 반응을 하며 다양한 식당에 가게 되었다. 이후 학과와 동기들에게 어느 정도 적응한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해 세트메뉴를 먹기도 했다. <뒷부분 생략>

<부록 2> ‘연구 질문 1’을 위한 세부질문 리스트

1. 나에게 점심식사란?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세요)
2. ‘점심식사’의 조건이 있나요? (예: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누구와 함께 먹어야 한다.)
 - 2-1. ‘때운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의미를 물어본다.
 - 2-2. ‘점심’과 ‘점심식사’의 차이의 뉘앙스가 풍기면 후속질문 할 수 있다.
3. (2번 질문의 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질문) 간식과 점심식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3-1 (메뉴, 음식 등의 답이 나오면)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과 점심식사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 3-2 (시간 등의 답이 나오면) 어느 시간대가 간식시간이고 어느 시간대가 점심시간인가요?
4. 보통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세요?
5. (3번과 4번 질문에서 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질문) 점심시간 ‘대’는 언제인가요?
 - 5-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요인: 알바, 시간표, 개인의 시간관념 등 / 외부적인 요인: 식당 오픈 시간, 일행의 스케줄 등)
 - 5-2. 자신이 생각하는 점심시간에 먹지 않더라도 점심으로 간주하나요?
 - 5-3.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5-4 (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후속질문의 예시) ① 친구의 영향을 받는지, ② 시간표의 영향을 받는지, ③ 아침 또는 저녁식사를 하는가에 영향을 받는지 등
6. (위의 질문들에서 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질문) 점심식사는 당신에게 ‘밥’일 뿐인가요, 아니면 먹는 것 이상의 의미인가요?
 - 6-1. (먹는 것 이상이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 6-1-1. 혼자 먹을 때의 의미?
 - 6-1-2.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의 의미?
7. ‘점심식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내용에 따라 후속질문 할 것)

〈Key concepts〉: university students, ways to eat lunch, meaning of luncheon, participant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descriptive survey

What Luncheon Means to University Students?: An Ethnographic Study

Lee, Yongsook* · Lee, Sue Hyun**

This research explores the question “what luncheon means to university students?” In this research, undergraduat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regions were observed through various method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additional surveys were conducted in 30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turned out that only 68.5% of the students normally had proper lunch on campus. The major reasons for not having lunch on campus was that there was not enough time for lunch due to classes and/or other works, and that the menus provided at school did not satisfy the students. Venues most used for lunch were on-campus cafeteria, restaurants near the campus, and convenience stores. Only 70% of male students and 53% of female students answered that their ‘favorite place to eat’ and ‘the place they eat the most’ correspond. This, according to the analysis, was because students choose places to eat based on the distance, price, and whether they can finish their meals

*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quickly rather than their preferences. Most students ascribed positive meanings to such lunch time such as happiness/joy/oasis (29.7%), strength/energy/motivation (22.7%), and recess/break (22.7%). At the same time, however, non-positive or negative perspectives toward lunch on campus were also quite pervasive including 'survival/satisfying hunger' (12.5%), 'stress/burden' (7.0%) or 'money' (6.3%).